

중공은 “올림픽”을 “정치”와 연계시키고 있다.

근래에 와서 중공은 국제무대를 리용하여 북경“올림픽”을 “특색올림픽”, “과학기술올림픽”, “인류문화올림픽”으로 되게 하겠다고 외치고 외국의 극소수 인들의 입을 빌어 “체육경기”를 “정치문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허풍 떨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중공은 줄곧 “정치”를 자신의 전용명사로 삼고 매사마다 도처에서 “정치몽둥이”로 타격하고 살해했다. 그런데 오늘 중공은 “올림픽”대사를 정치와 연계하지 않고 “체육경기”로 여긴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중공의 속임수에 누가 넘어가겠는가? “올림픽”신청이 성공했을 때 중공은 매체를 통해 <이것은 중국인민의 정치생활중 하나의 대 희사이다.>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중공두목이 “올림픽”운동장과 체육장 설비들을 시찰하고 나서 “올림픽”준비상황 회보를 들을 때 “정치”와 관련되는 문제를 여러번 이야기했고 “올림픽”봉사지원자를 선발할 때 <정치조건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고 각별히 강조했으며 “올림픽”안전을 도모한다는 명의로 경찰 수백만 명을 보충확대했으며 18 류형, 43 종류 사람들을 “정치위험대상”으로 열거하고 타격했다.

“올림픽”정신은 “공정, 공평, 평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중국에서 좀처럼 찾아볼수 없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한지 9년이나 된다. “올림픽”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 중공은 여전히 파룬궁학원들을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며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인성절멸의 탄압정책을 집행하여 파룬궁학원들을 체포, 세뇌, 학살했으며 심지어 감옥에 갇힌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적출하여 팔았다. 이러한 중공의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행위는 국제사회의 견책과 반대를 받고 있다. 철같은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공은 “올림픽”과 “정치”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좀처럼 갈라놓은적이 없다.

중공의 사악한 본질과 기만술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치의 죄악을 덮어감추려고 최후발악하고 있으며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화세력”이란 정치모자를 씌워 타격하고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올림픽”과 “정치”를 한데 연계시키고 있는것은 곧바로 개변할수 없는 중공의 본성이다. 우리는 중공의 량면수법에 절대 속지 말고 “올림픽”을 파괴하는 중공의 죄행을 제지시키자.

대만 대남시정부의 표창을 받은 신문예술단



금년 2월 29일, 신문 만회가 대만에서 열렸다. 신문예술단의 정채로운 공연은 관중들을 감동시켰다. 대남시

정부 비서장은 시장 허첨재(许添财)를 대표하여 <전통예술 (正统艺术), 순선순미(纯善纯美)>라고 쓴 편액을 증송했다.



한국청와대 총통부 앞에서 파룬궁진상자료를 전시



대한민국 청와대(총통부)는 한국 중앙 정부최고 행정기구이며, 각국 관광객들

이 서울시에서 유람할때 반드시 방문하는곳이다.

현지 한국 파룬궁수련생들이 청와대부근에 진상전람판을 세워 놓고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적출하여 판매하는 죄행을 적발했고 “9 평공산당”과 파룬궁박해진상신문 등 자료들을 펼쳐놓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을 폭로했다.

“편싼런”은 이 세상의 준칙이다



금년 2월 24일, 독일 뮌헨중국
령사관앞에서 녀수(女修) 2명(윗
사진)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
출한 진상을 보고 나서 <“편싼런”
은 이 세상의 준칙이다.>고 표시했
으며 서면부에 싸인하고 <전세계
선량한 사람과 함께 중공의 죄행을
제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폭설에도 무너지지 않는 대형 비닐막



료녕성 안산시교 한 농가는 야채비닐막
농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7년 1월에 내린 대폭설에 마을의 야채
비닐막이 죄다 무너졌지만 유독이 농가의 대
비닐막만은 아무런 손실도 없었다. 마을사람
들은 너무 신기해 이 농가에 가서 물어보고
서야 그 연고를 알게 되었다. 이 농가는 아래
방을 대법제자에게 세를 주었는데 늘 파룬궁
진상을 듣고서 파룬 대법이 좋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천안문분신자살안건>도 중공이 꾸
며낸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온 집식구가 “3 퇴(중공의 당,
단, 대에서 퇴출)”했다. 그리하여 이 농가는 복을 받은 것이었다.

중공은 올림픽명으로 파룬궁학원을 더욱 창궐하게 박해하고 있다.

북경올림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중공은 올림픽명
의로 파룬궁학원들을 더욱 창궐하게 박해하고 있다. 근간에 와서
박해 받은 북경파룬궁학원만 해도 수백명에 달하며 지난 2월달
에 파룬궁학원 10명이 잔혹한 박해로 사망되었다.

..... 폭로 박해 연변 박해 소식

- 안도현파룬궁학원 리수향(李秀香)은 그믐날 객차에서 진상을 이야기하다 악경들에게 랍치 되었다.
- 금년 2월 1일, 룡정시파룬궁학원 류경걸(刘庆杰)은 진상 화폐로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금년 3월 2일 오후 5시경

에 안도현백하지구 파룬궁학원
백매(白梅)는 백산시 로수하 지
구에서 리혜(李慧) 등 2명 파룬
궁학원들과 함께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집수색을 당하고 필
기본 컴퓨터를 빼앗겼다.

- 금년 3월 4일 오전, 연길시 파룬궁학원 김미자(金美子)는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악인들에게 고발되어 지금 연길시북산가파출소에 갇혔다.

그림책 (런재 5)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



13. 2003년 6월부터 회하특대
홍수가 일어났고 같은해 8월
하순에 위하와 한강지역에
수재가 들었다.



14. 2002년 11월부터 사스병
이 유행되었고 2003년에 조류
독감이 전염되어 인류의 생명
을 위협했다.



15. 2005년 여름에 생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이 룡녕 1개 성
만 해도 36명이나 되었다. 잇
따라 태풍, 회오리바람, 모래바
람이 일어났고 남방에는 수재
가 들었고 중경에는 대 한재가
들었다.